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월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이 궁금하다
- WSJ: 지난 2000년 이래 금리 변동 추세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올해 최고치 부근에서 안정세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정부, 은행의 국채 거래 제한 규정 완화
- Bloomberg: 월가, 연준 매파 정책으로 증시 매도세 가능성 우려

[물류]

- WSJ: 급등한 태평양 해운 운임 줄어든다

[오일]

- NYT: 미국 개입 우려에 유가 급등...트럼프, 이란에 '항복' 촉구

[철강]

- Bloomberg: 일본 제철, 1백 41억 불에 US Steel 인수 마무리

[전기차]

- Bloomberg: 트럼프, 미국을 전기차 후발국으로 만들고 있어

[주택]

- Bloomberg: 미 신규 주택 착공, 5년 만에 최저치로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Sam's Club, 관세 상황에서 저가 유지 전략 가능할까?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 on Hold Leaves Wall Street Asking What It Will Take to Cut Interest Rates

월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이 궁금하다

- 오늘 수요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방침이다. 그런데 월가는 연준이 어떤 상황일 때 금리를 인하할지 실마리를 알기 위해 파월 의장에 주목할 예정이다.
- 연준 관리들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우선 관세, 이민, 세금 정책을 둘러싼 의문점을 백악관이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다.
- 앞으로 새로운 경제 지표와 오늘 연준 관리들이 결정하는 금리 예상 점도표들이 연준 관리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. 그 가능성은 올해 4분기 전에 금리 인하로부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모두 포함된다.

Bloomberg 기사

WSJ: Ahead of the Fed's Decision, Here's How Rates Have Moved Since 2000

지난 2000년 이래 금리 변동 추세

- 투자자들은 오늘 수요일 연준이 금리 4.25%~4.5%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아래 차트는 2000년도부터 연준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시행했는지 보여준다.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때도 포함된다.
- 연준은 지난 3차례, 즉 5월 7일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태다.

WSJ 기사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Stabilize Near Highest Levels This Year

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올해 최고치 부근에서 안정세

-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는 6월 14일 끝나는 주에 5천 건 감소한 24만 5천 건을 기록했다. 8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.
- 전체 청구 건수는 1백 95만 건으로 약간 감소했다. 이는 일자리 시장이 점차 둔화되는 조짐으로 보인다.
- 4주 평균 일자리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으로 상승, 지난 2023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. 구인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US Plans to Ease Capital Rule Limiting Banks' Treasury Trades

미 정부, 은행의 국채 거래 제한 규정 완화

- 미 은행 당국은 대출 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'강화된 보안 레버리지 비율(eSLR)'을 1.5 퍼센트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. 이로 인해 은행들의 29조 규모의 국채 시장에서 거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
- eSLR는 은행의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소 비율을 의미하는 규제인데 주로 대형 은행들에 적용되어 부채 활용을 제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시행되어온 조치이다.
- 이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eSLR하의 은행 자본 조건은 현재의 5%에서 3.5%~4.5%로 낮아진다.
- 은행 자사들도 그들의 요구되는 비율도 현재 6%에서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
-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이같은 취지와는 달리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매입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Wall Street Fears Hawkish Fed Will Trigger Stock Market Selloff

월가, 연준 매파 정책으로 증시 매도세 가능성 우려

- 오늘 수요일 연준 파월 의장의 입장과 전망이 시장 발행에 주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. 투자자들은 올가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.
- 현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매파적 입장은 보일 경우 매도세가 촉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. 반대로 금리 인하 신호는 랠리를 이끌 수 있다.
- 투자자들은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평상시 연준 발표 때보다 차분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. 투자자들은 매파적인 입장은 보일 경우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물류]

WSJ: The Surge in Ocean Shipping Rates Is Peaking 급등한 태평양 해운 운임 줄어든다

- 그동안 급등한 해운 운임이 줄어들고 있다. 관세와 소비 우려 가운데 미 수입업체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상황이다.
- 상하이로부터 미 서부까지의 태평양 해운 운임이 27% 감소해 관련 글로벌 지수는 6.8% 감소했다.
- 구체적으로 이번주 초에 아시아에서 미 서부까지 40피트 컨테이너 해운 평균 현물가는 전주의 6천불에서 5천8백40불로 감소했다.

WSJ 기사

[오일]

NYT: Oil Prices Climb as Trump Calls for Iran's 'Surrender' 미국 개입 우려에 유가 급등...트럼프, 이란에 '항복' 촉구
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을 요구하자, 이스라엘-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.
- 이로 인해 미국산 원유 가격이 화요일에 4% 이상 상승해 배럴당 약 75달러를 기록하며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.
- 워싱턴 국제 연구 센터 분석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, GPS 신호를 교란하는 등 유조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적했다. 또한, 석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

NYT 기사

[철강]

Bloomberg: Nippon Steel Closes \$14.1 Billion Acquisition of US Steel 일본 제철, 1백41억 불에 US Steel 인수 마무리

- 일본 제철이 US Steel을 1백41억 불에 인수키로 마무리되면서 지난 18개월간의 정치적 갈등이 종결되었다. 트럼프의 지지로 인수가 마무리된 것이다.
- 일본제철은 주당 55불로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업체가 되었으며 특히 트럼프의 50%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미국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.
- 특히 이번 인수의 특징은 이 인수된 회사의 주요한 전략적인 결정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.

Bloomberg: 기사

[전기차]

Bloomberg: Trump Is Turning the US Into an Electric Vehicle Laggard 트럼프, 미국을 전기차 후발국으로 만들고 있어

- BloombergNEF 보고서에 따르면,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자동차 지원 제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수년간 뒤처질 수 있다.
- 이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배터리 구동 자동차 판매 예상치를 1,400만 대 축소하면서 처음으로 단기 및 장기 전기차 전망을 동시에 하향 조정한 내용이 포함된다.
-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기차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으며, 이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 분석했다.
- 반면 중국은 플러그인 자동차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며, 내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가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

Bloomberg: New Home Construction Falls to Five-Year Low 미 신규 주택 착공, 5년 만에 최저치로

- 매물 재고 증가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인해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했다.
- 수요일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9.8% 감소한 연간 126만 채를 기록했다. 이는 블룸버그의 조사에서 나온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이다.
- 르네상스 매크로 연구 책임자 Neil Dutta는 “주택 착공 건수가 주택 완공 건수보다 낮은 수준으로, 건설 중인 주택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”며 향후 몇 분기 동안 주택 투자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 덧붙였다.

- 주택 연구 센터 분석가 Alex Barron은 “건설업체들이 가격 인하 외에도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점점 더 큰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또한, “건설업체들이 재고 처리 속도를 늦추면서 올해 단독주택 착공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”고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Tariffs Test Sam's Club Strategy of Keeping Prices as Low as Possible

Sam's Club, 관세 상황에서 저가 유지 전략 가능할까?

-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, 샘스클럽은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.
- 특히, 가격 인상은 소형 주방 가전제품이나 야외 장식용품 등 자유재 제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.
- 다만 샘스클럽은 고객 반응을 고려해 우선 1천 개의 여름 인기 품목을 대상으로 최소 7월 22일까지 가격을 동결하고,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해당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샘스클럽 CFO Todd Sears는 “샘스클럽은 포장을 간소화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 식품 가격 인상을 예상하지는 않는다”고 전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이스라엘·이란 분쟁 美개입 가능성에 뉴욕증시 하락...유가 4%↑ 다우 0.7%↓·나스닥 0.9%↓...트럼프, 이란에 "무조건 항복하라"

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5일째 접어든 17일(현지시간)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 노선을 취하며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9.29포인트(-0.70%) 내린 42,215.80에 거래를 마쳤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